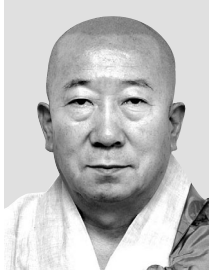




# “아까운 것 없이 무엇이나 베푸는 마음을 씹시다”

## 영원한 깨달음 빛을 봉축합니다

관음종 총무원장 흥파 스님



인연이 지혜로운 불자 여러분! 복덕을 갖추기 위해 정진하시는 불자여러분! 원력을 세우고 인생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불자여러분!

오늘은 부처님오신날 인류의 스승이며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부처님께 귀의하며 봉축합니다. 모든 생명들이 한결 같이 깨달음의 모습으로 발전하고 하나같이 부처님을 닮아가려는 삶이어야 하겠습니다. 부처님 같이 아까운 것 없이 무엇이나 베푸는 마음을 씹시다. 부처님처럼 깨끗하고 편안한 마음을 보입시다. 부처님처럼 고뇌와 괴로움을 참고 견뎌 내는 마음을 갖추시다.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은 삶이 평안과 행복이 넘치는 깨달음의 등불을 밝히시다.

## 고통 받는 이에게 자비희사를

총지중 통리원장 법등 정사



요즘 전 세계는 이상 기후와 화산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부처님의 탄신지가 있는 네팔은 대지진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네팔은 81년 만에 수도인 카트만두를 중심으로 약 7,200여명의 사망자와 1만 2천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상태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빈부의 차이와 소통과 화합의 부족으로 많은 갈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갈등의 화합은 가장 좋은 방법이 서로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마음과 물질을 서로 나누어 어려운 이들에게는 용기를 전하고, 내 자신의 복덕을 증장하는 부처님 오신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 존귀한 님 오심은 중생구제

국제선불교조계종 중정 목탁 스님



초파일 사라나무 꽃들은 밑동에서 끝까지 한 빛으로 되어 가지와 가지, 꽃과 꽃 사이에 5색 별과 아름다운 새소리로 어우러지는 톨미나 동산은 흡사 하늘 동산과 같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괴롭게 살아가는 모두의 새로운 탄생, 새로운 삶을 기약하는 거룩한 축복이 왔습니다. 부처님의 탄생으로 출가와 고행은 깊고도 높아 중생이 가깝기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고통의 세상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맞아 다시 한 번 참회와 정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항상 자비로 베풀어라

불교조계종 중정대행 해인 스님



계율청정 금구성언(戒律淸淨 金口聖言) 언제나 계율을 청정하게 지키고 항상 마음으로 부끄러워 할 줄 알아 나쁜 법은 생사의 근본임을 알아라. 음식의 양을 알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해야 한다. 항상 만족할 줄 알며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한다. 항상 자비로 베풀어라. 항상(生死) 죽음을 염두에 두라. 착한 벗과 함께 하고 신, 구, 의(身, 口, 意) 삼업으로 좋은 생각을 하라. 항상 공부(佛法)하라. 모든 삼업은 항상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 국민은 평화롭고 세계는 화평하다. 남산은 푸르고 산새를 노래하고 하늘은 푸르고 강은 유유히 흐른다. 밤하늘 은하수별이 빛난다.

## 선의 씨는 행복을 만드네

대한불교무량종 중정 해안 스님



세간의 등불 온 인류의 스승 부처님 오신 날 사월 초파일, 부처님 옆에 두고 따르지 않은 이 만날 수 없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르침 따르는 자 항상 옆에 있다네. 천강유수 천강월(千江流水 千江月) 법신정정 광무변(法身正正 光無邊) 한 개의 달그림자 강물 따라 다비치 듯이 부처님 자비광명 끌고 있다네. 악(惡)의 씨가 중해도 수행에 따라 운명이 바뀌는 법, 누세업장 소멸되면 진면목이 부처일세. 영원한 것이 어데 있는가 모두가 한때일 뿐 부질없는 탐욕은 어제도 오늘도 지옥을 만들고 한 알의 선의 씨는 행복을 만드네.

## 마음의 형식을 떠나 수행하자

(사)대한불교승가종 중정 월인 스님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뜻은 모든 생명의 불성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높이 받들어 마음껏 봉축하고 사랑과 나눔을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너와 나라는 분별심을 버리는 것이 그 첫 걸음입니다. 이러한 분별 망상이 사라질 때 우리는 참 불자가 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오직 자기의 불성을 믿고 나아가면 어떠한 난관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하나임을 알아야 합니다. 항상 상구보리 하회중생하며 자연의 이치와 같이 부처님 마음으로 수행하고 정진합니다.

## 이웃과 함께 정진합시다

(사)대원불교조계종 중정 청봉 스님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이 번뇌와 무명 속에서 벗어나 일체 중생의 깨달음을 이루도록 하기위해 오신 것입니다. 부처님의 큰 가르침을 받들어 자비와 나눔을 적극 실천하고 인류 모두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이 되도록 모든 불자들이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理)와 사(事) 구분 없고, 정(正)과 사(邪)를 초월하는 자비 행으로써 오로지 이웃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정진해야 하겠습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다시 한 번 봉축하며 법신광명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발원합니다.

## 대승사상과 자비정신 실천을

(사)대승불교본원종 중정 대화 스님



불기 2559년 전 음력 4월 초8일 부처님께서 우리들의 본래면목이 부처임을 깨우쳐 주시고 지혜의 등불 들고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모든 생명이 부처로 다시 태어나게 된 거룩한 생신입니다.

다 같이 마음의 등불 밝혀 봉축하고 부처님의 대승사상과 자비정신을 실천하여 이 땅 위에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부처님 세상극락정토를 실현합시다. 우리 모두의 가슴에 부처님의 자리이타정신과 자비광명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발원합니다.

## 어두워진 미혹을 걷어냅시다

(사)한국생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도선 스님



자등명이라 하는 것은 중생들 각자 자신의 마음속에 탐진치 삼독으로 어두워진 미혹을 걷어내고 자비광명을 밝혀서 진리를 체득하며 인과응보의 이치를 깨달아 고통 여의고 낙을 얻어 밝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광명의 등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부처님오신날, 이 좋은 날에 지나간 일을 원망하고 남에게 탓을 돌리지 말고 스스로 반성하여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부처님의 대자대비의 지혜로 사회의 아픔을 치유하고 함께 행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 ‘자타일시성불도’ 향해 정진하세

(사)대한불교금강종 중정대행 총무원장 법산 스님



친애하는 불자 여러분! 인류의 큰 스승 이시며 사생의 자비이신 부처님께서 사바세계 중생들의 진정한 삶을 찾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거룩하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신 2559주년을 진심으로 경하 드립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80세의 생애를 오로지 중생들을 위해서 길에서 태어나셔서 길에서 열반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말로써 하는 유명 무실한 보살행을 하지 말고, 나를 낫추는 하심(下心)의 도리로서 실천 수행하는 대승보살도가 됩시다.

## 마음의 지혜에 등불 밝히세

(재)대한불교일명선교종 중정 지공 스님



오늘은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하늘과 인간의 가장 높고 귀한 스승 이시며 모든 중생의 자비로운 어버이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고통의 바다에서 허덕이는 우리에 중생들을 열반의 저 언덕으로 인도하려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더럽고 추한 사바세계에 오신 뜻은 우리 모두에게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위한 것입니다. 혼탁한 현세에 흔들리지 말고 각자 지혜의 등불을 밝히십시오.

## 나날이 새로운 날입니다

(재)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보현 스님



나날이 새로운 날입니다. 스스로를 사랑하십시오. 해야 할 일도 많고 이루어야 할 일도 많고 달려가야 할 곳도 많지만 멈춘 적 없고 돌아본 적 없이 욕망과 욕구의 질주에 동행해 온 자신을 어루만지며 이전 사랑한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자신은 당신의 무관심에도 묵묵히 당신의 사랑과 눈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헛살 파스한 양지에 자신을 드러내어 한껏 견어 보십시오. 외면한 만큼 눈물이 가슴을 밀쳐 오를 것입니다. 동행하십시오.

## 자주 주인공을 찾고 불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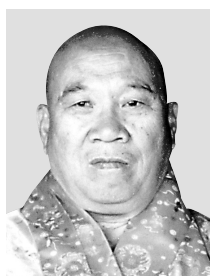
대한불교삼론종 중정 해승 스님



아인산하복삼독(我人山下逢三毒) 역순도중우팔풍(逆順途中遇八風) 혹고분연난제지(惑苦紛然難制止) 아의빈환주인공(也宜頻喚主人公) 아상과 인상 산 아래에서 삼독을 만나고 역경이나 순경의 도중에 팔풍을 만나서 미혹과 고통이 분분해 제지하기 어려울 테니 또한 마땅히 자주 주인공을 불러야 하리라. 부처님오신날 참된 성품을 찾는 주인공이 되자면 주인공을 자주 불러야 한다. 주인공은 참된 불성(佛性)을 회복하면 그대로 부처가 된다. 따라서 중생에서 부처가 되는 것은 주인공 자리만 잘 살피면 된다.

## 깨치고 나면 업장도 여래실상

현대불교조계종 중정 벽운 스님



영가 선사께서 말씀하시길 고지식하고 어리석으며 도량 좁고 미련하니 빈주먹 손가락에서 실로 마음 쓰러 하는구나. 손가락 가지고 달이라 하니 공을 베풀어도 부질없고 깨치고 나면 그 질긴 업장도 분리 여래의 실상이요. 깨치지 못하면 빛도 깊어야 하리 불속에서 연꽃을 피우려면 내 내 시들지 않나니 대중들이여 불꽃 속에서 연꽃을 피우시라.

## 마음 속 무명을 씻어냅시다

(사)대한불교해동종 중정 혜봉 스님



올미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차 있는 무명을 씻고 지혜를 얻어 고통의 늪에서 벗어나고 자리이타의 정신으로 사바세계를 밝히십시오. 우주는 불보살님과 사생구류의 유행과 무정물이 서로 주체적으로 교류하고 상극 상입하면서 주반구족의 화엄세계를 연출하는 법계입니다. 이 축복된 우주에서 함께 더불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사회의 모든 분야가 희망적으로 달려야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대립과 갈등을 치유하고 미래 지향적인 자세로 성숙한 화합의 모습을 갖춰야 하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나무석가모니불

## 공존공생의 삶을 열어가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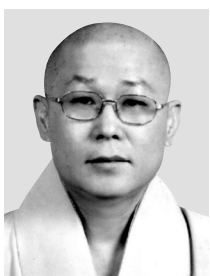
한국대승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취운 스님



봉축을 맞아 부처님의 삶과 말씀을 오늘에 되새겨 자신을 반성하고 이 중생사회를 밝히려는 주인공이 되어야겠습니다. 탐진치에 물들어 거저에 가득차고 미혹한 자신을 참회로 놓아버리고 참된 자기를 바로 봅시다. 내 안의 본래 청정을 되찾아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 내가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진실하게 사느냐가 소중한 것임을 알아야겠습니다. 모든 생명체와 산하대지가 공존공생하도록 바로 행하도록 합시다.

## 분별심 떨치고 평화와 공존을

한국불교원흥교단 개산대법주 마정 스님



해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부처님의 거룩한 법음(法音)을 전하지만 작금의 세계는 도처에서 살생의 포화가 멈추지 않고 독재의 그늘에서 신음하는 국민들은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끝나버린 동서양의 이데올로기 경쟁은 다시금 미일 중립로 대표되는 신냉전시대로 긴장을 고조시켜 가고 있으니 이 얼마나 위태로운 일입니까? 항상 부처님을 염원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부처님 법음(法音)에 귀 기울인다면 세계화(世界一花)를 이루고 안심입명(安心立命)에 이르는 거룩한 불국토가 성취되는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 무소의 뿔처럼 진리의 길 갈뿐

(사)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장 윤남 스님



변화하는 마음 즉 망심으로 인하여 탐진치 삼독이 쌓입니다. 삼독을 해제하기 전까지는 절대 삼계를 벗어 날 수 없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실천보다는 입으로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실천이 없는 지혜는 진리가 아닙니다. 즉 행이 따라야 하는 것이죠.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서는 무소의 뿔처럼 묵묵히 진리의 길을 갈 뿐입니다. 올미년 부처님 오신 날 올곧이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불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봉사와 평등, 나눔을 실천하세

(재)대한불교일명선교종 이사장 총무원장 경원 스님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 뜻은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시기 위함입니다. 난만 떠편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살육에 대한 참혹한 소식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법은 자리이타 동체대비로 서로를 위하고 나누고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서로를 탓하며 미움과 원망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의 존재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범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갈등과 반목을 타파하고 오늘부터는 사랑과 봉사와 평등과 나눔을 실천합시다.

## 물질만능주의 극복합시다

대한불교원흥종 총무원장 우석 스님



오늘은 자비하신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559년이 되는 날입니다. 모두 다함께 부처님의 탄신을 경배하며 경축합니다. 이 세상에 오신 부처님은 어리석고 무지한 중생들을 교화해서 해탈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물질만능주의에 파묻혀 참된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다가가지 못하고, 인간 본연에 의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탐욕과 아집에 빠져 옳고 그름도 모르는 채 부귀영화에만 목을 매는 아둔한 중생입니다. 오늘 만은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을 한번쯤 되새겨 참 나를 찾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